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국 인식* **

강상순***

【목 차】

1. 머리말
 2. 나말여초에서 17세기까지 한문단편소설 속 중국 배경의 양상과 그 의미
 3. 17~8세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의 일반화와 그 요인
 4. 19세기 장편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화' 인식의 동요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양상과 요인, 시대나 소설 유형에 따른 변화와 특징 등을 거시적이고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나말여초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창작된 한문단편소설, 특히 <최치원>, <최고운전>, <최척전>, <주생전> 등을 대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중국 배경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이 시기까지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은 우발적이고 단속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한반도의 국가(신라나 조선)와 중국(당이나 명) 사이에 활발한 문명 교류가 일어났던 시기에 고전소설에서도 곧잘 중국 배경이 등장하는데, 시대마다 작품마다 중국을 인식하는 데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17~8세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한국 고전소설에 중국 배경이 흔하다는 통념은 이 시기

* 이 논문(저서)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3)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 한국문화연구원 HK교수

의 장편소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필자는 이 시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 것은 한편으로 소설이 역사 서술 양식의 권위와 신뢰를 모방하고자 하는 ‘의사역사화 지향’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의 역사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완결적이며 충만한 서사를 완성해보고자 하는 ‘서사적 환타지에의 지향’이 상호 길항하면서 작용하였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작품마다 개별적 고려가 작용한 면도 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19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것은 중국 인식 혹은 세계 인식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지 검토해보았다. 19세기 장편소설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과 오히려 중화문명의 중심인 중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19세기 들어 심화된 문명사적 위기의식과 이와 함께 더욱 강화된 조선중화주의의 상호 모순적이고도 길항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 배경, 중국 인식, 중화주의, 보편사, 의사역사화, 서사적 환타지

1. 머리말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는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중국을 배경으로 삼는다 함은 소설의 공간적 배경뿐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역사적 배경까지 중국의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소설의 소재적 원천의 하나로 꼽히는 설화나 야담, 일화 등은 대부분 자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데 비해, 고전소설의 경우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種數로만 따진다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많을 듯싶을 정도다.

그런데, 근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많다는 것은 문제적인 현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民族語에 기반을 두고 自民族/自國의 역사와 현실을 포착·묘사해내는 것이 근대 이후 소설장르에 부여된 과제이자 가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고전소설이 지닌 사대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예속성의 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로 한국 근대소설의 개척자로 명망이 높았던 이광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고전소설의 중국 배경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바 있다.

소설에는 <구운몽>이라든지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옥루몽> 등의 조선인의 창작이 있스나 이것도 시와 가타 조선인이 잠시 지나인이 되어서 지은 것이오 내가 조선인이라 하는 자각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 문자부터 한자를 사용하였거니와 그 재료도 전부 지나 것이다...(중략)... 정신적으로 지나의 고대에 들어가 살았다.¹⁾

<구운몽>을 비롯하여 여기에 열거된 작품들은 조선인이 지은 고전소설이지만 ‘문자’(표현언어)뿐 아니라 ‘재료’(아마도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나 인물) 또한 중국의 것을 취하고 있으니 중국문화에 정신적으로 예속된 작품에 불과하다는 이광수의 비판적 언술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편협하고 사실에도 그리 잘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민족주의가 담론장을 장악한 가운데 근대적인 문학정전체제와 문학연구제도가 막 형성되어가던 식민지기에 꽤 많은 지식인들의 공감을 얻었던 문학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²⁾ 우리는 애국계몽기와 식민지기 지식인들의 담론 속에서 소설장르에 대한 막중한 기대와 [역으로 그만큼 엄중해진] 고전소설의 반근대적 요소에 대한 비판을 곧잘 보게 되는데, 중국을 배경으로 취한 작품이 많다는 것은 고전소설이 비현실적이고 중

1) 이광수, 『신생활론』, 박문서관, 1926.

2) 물론 ‘문자’와 ‘재료’ 가운데서도 이광수가 보기에 더 결정적인 것은 ‘문자’였다. 그는 漢文으로 된 문학은 모두 중국문학이며 國文으로 된 문학만이 조선문학이라는 극단적인 ‘屬文’의 원칙을 내세우는데, 이 원칙을 밀어붙이면 <구운몽> 같은 작품은 “그 문이 中國文이기 때문에 중국문학”인 반면, <삼국지> 같은 작품은 “조선문으로 번역”되었기에 “조선문학이다”고 할 수 있다.(이광수, 『조선문학의 개념』, 『신생』 2권 1호, 1929.1.)

국문화에 대해 예속적이라는 통념을 더욱 굳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당대 문단과 학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던 부정적 시각에 맞서 고전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자 했던 김태준은 그의 『조선소설사』 전반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부터 시도해야만 했다. 『조선소설사』의 서론 제2장 ‘조선소설의 제문제’에서 그는 한국 고전소설에서 곧잘 중국이 배경으로 설정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들었다. 풍부한 漢學 소양을 지닌 고전소설 작가들의 중국문화—특히 김태준이 ‘남중국 문명’이라 부른 중국 강남문화—에 대한 동경과 찬미, 낮은 지리와 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 조선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방편,³⁾ 비록 구체적인 변증이 뒤따르지 않는 원론 수준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지만, 오늘날의 연구자들도 동의할 만한 주요 측면들이 두루 지적된 통찰력 있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이 형성되어가던 시기에 벌어진 이러한 논란 이후 고전소설 연구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두드러지게 부각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처럼 자국을 배경으로 한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고전소설 다수는 복고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시대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강고하고 암묵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의 의미를 천착하는 연구들이 간간히 제출되기는 했지만, 개별 작품론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분석만으로도 이 같은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웠다.

이 글은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의 양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해보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해명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김태준에 의해 마련된 논의의 단서와, 개별 작품론들을 통해 축적된 기존 성과를 이어 받아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양상과 요인,

3)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0면.

시대나 소설 유형에 따른 변화와 특징 등을 거시적이고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나말여초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창작된 한문 단편소설, 특히 전기소설 유형에 등장하는 중국 배경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은 우발적이고 단속적으로 등장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국가(신라나 조선)와 중국(당이나 명) 사이의 문명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에 주로 한정되는데, 물론 작품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17~8세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 고전소설에 중국 배경이 흔하다는 통념은 이 시기의 장편소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이 절에서는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에서 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지 그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개별 작품마다 고려된 개별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특히 19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들을 대상으로 작품 속 중국 배경의 양상과 그 속에 함축된 중국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앞서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 것은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에서부터라고 했다. 그런데 19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에서는 17~8세기의 장편소설과 배경 설정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다. 19세기 장편소설에서는 정치적 상상력의 중심무대를 차지해왔던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오히려 반대로 위기에 빠진 중화세계로서의 중국을 보수·방어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은 명청 교체 이후 구축된 중세 동아시아 국제질서⁴⁾ 속에 내재된 근본적 갈등과 긴

4) 근대 이전 중세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 현재 동아시아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동아시아 조공-책봉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윌러스틴식의 용어로 ‘동아시아 제국질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중성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장, 서구문명과의 접촉 등을 통해 촉발된 화이론적 세계관의 균열과 이로 인해 심화된 문명사적 위기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4절에서는 이 점을 검토해봄으로써 19세기 장편고전소설 향유층에게 나타난 중국 인식 혹은 세계 인식의 변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나말여초에서 17세기까지 한문단편소설 속

중국 배경의 양상과 그 의미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 중국을 배경으로 취한 작품이 많다는 것은, 조선 후기 장편 형식의 고전소설에 대해서는 타당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전소설사 전반을 두고 말하면 그리 타당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단편 형식의 고전소설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드물게 단속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 절에서는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취한 작품들이 특정한 시기에 단속적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개괄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①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작품을 든다면 나말여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崔致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치원>은 唐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한 후 을수현위로 부임한 최치원이 그 지역의 남쪽 쌍녀분을 찾았다가 원치 않은 정혼으로 인해 병을 얻어 요절한 두 여인의 원혼을 만나 서로 시로써 교감하고 회포를 나누었다는 줄거리를 지닌 작품으로, 『수이전』에 수록되었다가 『태평통재』에 재수록되어 전한다. 『수이전』은 그 일문들을 볼 때 傳奇로부터 志怪, 史傳, 불교영험설화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적·양식적 성향을 지닌 서사적 산문들을 두루 수록한 작품집이었던 듯한데, <최치원>은 그 가운데서도

당전기에 비견할 만한 완전한 전기 양식을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수이전』 일문 중 다른 작품들은 모두 신라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최치원>은 중국 당나라의 宣州 溧水縣(오늘날의 江蘇 城 南京市 溧水縣)의 남쪽에 있던 쌍녀분(현재 南京市 高淳縣)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배경뿐 아니라 인물 또한 신라인 최치원과 함께 八娘과 九娘이라는 두 명의 중국인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배경과 인물이 자아내는 이러한 이국성은 이 작품에서 우연적이거나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남방의 이국적 공간이 자아내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 신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내외법을 강요받았던 당나라 상층여성들의 유폐된 처지⁵⁾, 빈공과에 급제해 관료로서의 길을 내딛었지만 이방인으로서 막막함과 쓸쓸함을 느껴야 했던 최치원의 심경 등은 이 작품에서 주제적 의미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최치원>은 같은 중국을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 해도 이를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문명 공간으로 묘사하는 조선 후기 장편소설이나, 중국과의 공간적·종족적 거리를 의식하면서도 인륜적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최천전> 같은 작품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은 작품 내적으로 어떠한 離隔性이나 異質感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주인공 자체가 이미 중국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타자가 아니라 자아의 일부로, 그리고 중국사를 異國史가 아니라 普遍史로 받아들였던 장편소설 향유층의 중국 인식과 관계된다. 그리고 <최척전>과 같은 작품에서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인 면에서 조선과

5) 『수이전』의 다른 일문들, 예컨대 <김현감호>나 <수삼석남>, <심화요담> 같은 작품들이나 <조선> 같은 작품들에 나타난 신라 여성들의 경우 <최치원>의 두 여성에 비해 덜 유폐되어 있고 그만큼 더 성애에 있어 능동적이다.

다른 풍물·언어를 지닌 낯선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인륜적 차원에서는 가족애와 같은 유교적 가치가 통용되는 동질적인 문명세계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최치원>에서의 중국(唐)은 외국의 유학생에게 과거를 통해 입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적인 세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물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국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사실 <최치원>은 당전기 중 <遊仙窟>과 유사한 점이 많아 이 작품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⁶⁾, 그럼에도 <최치원>이 <유선굴>처럼 유희적인 성적 환타지로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최치원>에 내재된 근본적인 타자성 혹은 異物感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거시적으로 볼 때 <최치원>의 중국 배경에는, 때로 빼겨거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안정을 구가하였던 7~9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그러한 기반 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문명 교류, 빈공과와 같은 제도를 통해 주변민족의 문화엘리트들을 흡수하여 중화질서에 순응하는 지식인으로 동화시켜나갔던 당 제국의 개방적 이니셔티브, 그럼에도 소수자로서 중국의 상층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었던 이방 지식인의 고뇌 등이 중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⁷⁾ 그런 점에서 <최치원>은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중국을 작품의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일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개방성과 배타성, 보편성과 이국성을 작품의 핵심 요소로 끌어들이고 있는 매우 드문

6)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된바 있다. 차용주, 「쌍녀분설화와 유선굴과의 비교연구」, 『어문논집』 23, 민족어문학회, 1982; 한영환, 「최치원과 유선굴」, 『충격과 조화』, 국학자료원, 1992.)

7) <최치원>을 창작 가능하게 한 국제적인 문명 교류와 나말여초의 시대상에 대해서는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정출현,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지평과 나말여초 서사문학」, 『새민족문학사강좌』 1, 창비, 200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⁸⁾

② 다음으로 나말여초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치원>에 뒤이어 중국을 작품의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 작품을 꼽는다면, 16세기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운전>을 들 수 있다.

최치원과 관련된 신이한 설화들을 토대로 창작된 <최고운전>에서는 중국(唐)의 황제를 변방의 소국인 신라를 감시하고 겁박하며 최치원과 같은 영웅적 인물의 출현을 경계하는 권위적이면서도 협량한 제국의 지배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 反淸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박씨전>, <임경업전> 같은 작품과 함께, 이 작품은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 드물게 중국에 대한 대립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6세기⁹⁾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시기이자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외교가 매우 고조되어가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華夷論에 기반한 중화주의는 조공-책봉체제라는 [힘의 불균형과 문화적 우열을 내포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는데, 사실 동아시아 역사에서 ‘中華’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지리적·종족적·문화적 층위가 정확히 일치한 적은 드물었다. 그런데 명 제국이 건재했던

8) 현전 <최치원>의 작자와 저작 시기 문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작자와 저작 시기의 논란과 관계 없이 이 작품이 7~9세기 당 제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방성의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년간 구축되었던 元 제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제외하면, 7~9세기 당 제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질서가 가장 개방적이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현룡은 『효빈잡기』의 내용을 근거로 <최고운전>의 창작 하한선을 1579년으로 추정하였다.(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5~6세기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안정되면서 ‘중화’ 개념을 둘러싼 혼돈이 별로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전문 사건이나 중계변무 등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조선은 친명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했으며 그러한 양상은 중종반정(1506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중종은 반정의 정당성을 명 황제로부터의 승인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는데¹⁰⁾, 이러한 국왕의 崇明的 태도는 이념적 중화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성리학파 함께 16세기 全般에 걸쳐 지배층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고,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再造之恩論이나 병자호란 이후의 大明義理論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최고운전>은 이처럼 중화주의가 확산되고 이에 입각한 조공-책봉체제가 강화되어갔던 16세기에 창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당)의 황제를 신라(조선)와 그 인재를 경계하고 탄압하는 폭압적인 권력자로, 당과 신라의 관계를 명분에 입각한 사대의 관계가 아니라 패권에 기반한 불평등한 지배-예속의 관계로 그리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아마도 이 작품의 작가는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친명 사대주의 노선에 반발했던 道家 혹은 仙家 취향의 지식인이거나, 혹은 지배층의 지나친 사대외교로 인해 질곡을 겪었던 동시대 민중의 불만에 反響했던 비판적 지식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¹⁾

하지만 <최고운전>의 작가는 중국을 문명의 척도이자 국제질서의 중심

10) 중종반정 이후 특히 노골화된 승명적 태도에 대해서는 계승범, 「16~7세기 명-조선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정치와 평론』 10, 한국정치평론학회,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11) 조상우는 <최고운전>에서 ‘對中華 의식’이 표출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15세기 세조대에 적극 추진되었던 주체적인 외교정책의 여파와 중종반정 이후 팽배한 사대주의에 대한 반동의식, 16세기 확산된 도교 의식과 그 문학적 수용을 꼽았다.(조상우, 「최고운전에 표출된 ‘대중화 의식’의 형성 배경과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대체로 동의할 만한 지적이지만, 이와 함께 16세기 들어 명 사신에 대한 과도한 접대가 국가재정이나 민생에 큰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민중의 불만 또한 높았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그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라고 여기는 중화주의를 거부하면서도, 그렇다고 자민족/자국 중심주의로 회귀하지도 않는다. 애초 금돼지의 자식으로 여겨져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탁월한 능력 때문에 중국 황제와 신하들에게 견제와 모함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라 왕에게조차 체포되어 추방된 <최고운전>의 주인공 최치원은 가족-국가-제국으로 이어지는 유교적 家國질서 혹은 중화주의적 세계 질서 바깥으로 버려진 존재이자 타고난 개인적 능력으로 이 세계와 인정투쟁을 벌이는 반영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운전>은 16세기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었던 [성리학적 이념에 바탕을 둔] 종법적 가족-국가주의와 그것의 이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도가/선가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탈국가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편 17세기 전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척전>, <주생전>, <위경천전> 등은 모두 임병양란이라는 동아시아의 국제전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조선뿐 아니라 중국의 강남, 일본, 베트남, 만주 등 동아시아 전반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시기의 고전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이 폭넓게 확장된 데는 임병양란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전란의 체험이 큰 역할을 했음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잘 지적된바 있다.¹²⁾ 거대한 동아시아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개인들이 겪은 派兵·被虜·離散 같은 극한 체험은 이러한 작품들의 주요한 창작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란 체험을 통해 조선 전기까지 使行이나 표류 같은 제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잠시 회자되곤 했던 낯설고 추상적인 동아시아라는 공간은 밀접히 상호 연루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로,

12) 대표적으로 다음 논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학회, 1999.

확장된 하나의 생존 공간 단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공간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은 역시 <최척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재란이라는 국제적 전란에 휩쓸린 옥영과 최척 부부는 각각 被虜와 離散의 수난을 겪으며 일본, 베트남, 중국의 절강 등 동아시아 전반을 떠돈다. 이 과정에서 옥영과 최척이 체험하는 동아시아는 비록 조선과는 다른 낯선 풍경을 지닌 이질적인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같은 인륜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질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같은 유가적 이념도덕과 가족주의적 감성을 지닌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국인 일본마저도 전쟁을 싫어하고 신의를 존중할 줄 아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낙관적인 세계-공간 인식이 <최척전>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낙관적인 세계-공간 인식이 비극으로 여겨질 법한 최척 가족의 수난사를 감싸면서 이를 희망의 서사로 변형시키고 있다.¹³⁾

이에 비해 <주생전>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에서 만난 조선과 중국의 문인이 같은 문자로 필담을 나누면서 갖게 된 문명적 연대의식과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휩쓸린 연약한 인간에 대한 상호 연민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작품이다. <주생전>은 권필이 임진왜란 시 조선에 출병한 중국 강남 출신의 문인 주생과 필담으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기에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¹⁴⁾ 그런데 이 작품에서 임진왜란

13) 최근의 <최척전> 연구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동아시아인들 간의 인간애와 연대를 주목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대표적으로 다음 논저들을 들 수 있겠다.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14) <주생전>의 창작 과정과 시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신태수, 「주생전의 창작 배경」,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참조. 한편 신태수는 <주생전>에 묘사된 강남이 실제에 부합하기보다 16세기 조선 문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중국 강남에 대한 심상지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음을 잘 밝히고 있다. 신태수, 「외국공간에 대한

은 에필로그에 잠시 등장하는 시공간적 배경일 뿐이지만, 실상 작품의 주제를 부조해주는 중요한 의미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진다. <주생전>에 묘사된 주생과 배도, 선화 간의 애정 관계는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쉽지 않고 낭만적 사랑으로 이상화하기에도 애매한, 불가항력적인 충동과 인간적 나약함이 뒤섞인 착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란은 이처럼 집착과 변심으로 착종된 애정 관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연민을 촉발하는 의미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마치 사랑이 그러하듯이, 전란은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이며 거스를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으로 체험된다. 바로 그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난 중국과 조선의 문인은 치정으로 얽힌 운명적 애정사를 반추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비애와 회한의 정서를 공유한다. 물론 이들 사이의 이러한 공감대를 매개한 것은 공동 문명의 토대라고 할 한문학적 소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처럼 17세기 전반에 창작된 한문단편소설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세계 전반이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배경 설정에는 국제적인 전란으로 인해 확장된 공간 감각뿐 아니라 이 전란을 통해 같은 인류적 가치 혹은 문명적 공감대를 지닌 동아시아인들 사이에 맺어진 교감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17~8세기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의 일반화와 그 요인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하는 것은 17세기 후반부터 축출하기 시작하는 장편소설들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장편소설이란, 가문소설·규방소설·대하장편소설 등으로도 불리는 국문장편소설뿐 아니라,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구운몽>이나 19세기에 창작된 <옥루몽>·<삼한습유> 등의 한문장편소설, 그리고 분량으로만 보면 장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내용상 장편소설 형식을 지향하고 있는 영웅소설 유형까지 망라한, 국문 혹은 한문으로 창작된 장편 형식의 고전소설 일반을 지칭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7세기 전반까지 한국 고전소설사의 주류를 차지했던 것은 사대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창작·향유된, 傳奇나 傳 양식의 한문단편소설이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사대부 남성뿐 아니라 사대부 여성층, 중하층까지 소설의 향유층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소설의 대중적 확산을 선도한 것은 연의소설이나 재자가인소설, 염정소설 등 중국에서 유입된 장편소설들이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은 이처럼 중국에서 유입된 장편소설의 유행에 자극을 받으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설 향유층의 욕망과 기호에 적합한 대중적 형식과 내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창작된 장편소설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등은 모두 중국을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축출하기 시작하는 장편소설들이 거의 대부분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취하게 된 데는 공통적인 요인도 있고 개별적인 요인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가운데 먼저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중국이 일반적인 배경으로 채택되도록 만든 공통적인 요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보건대 17세기 후반부터 축출하기 시작하는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는 서로 상충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충적인 두 가지 지향이 길항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중 하나가 소설 속의 서사를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擬似역사에의 지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실제의 역사가 지닌 불완전성이나 미완결성을 허구적 상상을 통해 보충하고자 하는 ‘서사적 환타지에의 지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거듭 지적된바 있듯이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은 마치 스스로 史實에 충실한 기록처럼 보이도록 분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실제의 역사적 시간과 소설의 허구적 시간을 교묘하게 엮고 있다.¹⁵⁾ 이처럼 소설이 스스로 역사물처럼 보이도록 분식하는 것 혹은 역사 서술 양식을 모방하는 것을 ‘의사역사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서 이처럼 의사역사화의 지향이 두루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16세기에 전래되어 임란 이후 조선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의소설 유형에서 특히 발전된 역사소설적 창작수법의 영향과, 역사 서술 양식이 지닌 권위와 신뢰를 모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소설의 서사에 진지하게 몰입하게 하고 교훈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작가 의도¹⁶⁾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사역사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장편소설이 실제의 역사에 충실하거나 나아가 그것을 대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여기에 소설적 상상력을 덧붙이는 연의소설과 달리, 장편소설은 애초 허구적으로 창조된 인물이나 가문을 주인공으로 삼고 여기에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그 보조역으로 배치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장편소설 작가가 사실에 기초하여 역사를 보충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재평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작품을 창

15) 특히 역사적 시간과 허구적 시간을 교직하는 수법에 있어 가장 정교한 수준을 보여 주는 작품은 <창선감의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길수의 연구가 잘 밝히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창선감의록>의 작가는 명대 가정년간의 실제 역사와 소설의 허구를 거의 연대기상으로 대입해보아도 착오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촘촘히 엮고 있다.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86면.)

16) 예를 들어 <소현성록>의 경우 그 서두에 ‘소승상 본전 별서’를 붙여 이 작품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포학사와 여상서가 저술한 것처럼 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품 말미에도 ‘유문성 자운산 문유록’을 덧붙여 이 작품이 명대에 재발견되어 세상에 전하게 된 것처럼 꾸미고 있다.

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장편소설 작가는 작품의 배경을 실제 역사에서 빌려오되, 실제 역사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도덕적이고 완결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상상적 서사를 추구한다—정신분석학에서는 이처럼 주체의 욕망에 따라 상상적으로 구축된 자기 충족적인 시나리오를 ‘환타지(fantasy)’라고 부른다—. 사실 유자들이 서술한 공적 역사는 孝悌忠信 같은 유교의 이상적 가치를 선양하지만, 실제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가치의 추구가 반드시 행복하고 이상적인 결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역사에서 그러한 가치 추구는 역사가의 포퓰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은 [가문의 결속과 번창 같은] 동시대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념과 욕망의 완전한 성취를 서사 속에 재현함으로써, 그리고 그것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도덕적 나르시시즘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이념과 욕망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축출하는 장편소설의 배경에는 이처럼 한편으로 마치 실제의 역사를 기술한 것인양 여겨지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의 역사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도덕적이고 완결적이며 자기 충족적인 서사적 환타지를 추구하는, 상충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보충적인 두 가지 지향이 길항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지향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선보다 중국을 배경으로 취하는 편이 더 적절했을 것이다. 조선을 배경으로 삼을 경우 너무 인접한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가문이나 당파, 왕조 등과 연관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거나 역사적 사실성을 둘러싼 독자들의 의혹을 받기 쉬웠을 것이다. 만약 삼국이나 고려왕조 같은 역대 왕조를 배경으로 취한다면—실제로 19세기에 창작된 <삼한습유>나 <육미당기> 같은 작품들은 신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정치·문화적 풍토의 차이나 시간적 거리로 인해 역사적 사실성은 약화되고 허구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 특히 [조선 후기 장

편소설 대부분이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 宋代나 明代는 일반화된 역사 지식의 대상으로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허구적 상상이 개입할 여지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역사 서술 양식을 모방하면서도 실제의 역사를 넘어선 완결적이고 충만한 서사적 환타지를 추구했던 조선 후기 장편소설 작가들에게 적절한 시공간적 배경으로 여겨졌으리라 추측된다.

물론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선택한 데에는, 이러한 공통 요인 이외에도, 개별 작품마다의 고유한 요인들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등을 보면 모두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대나 공간 설정에 있어서 작품마다 고유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구운몽>의 경우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중국 唐代의 荆楚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운몽>에서 성진이 願望했고 양소유가 실현했던 바, 즉 중세 사회에서 도달 가능한 최상의 富貴繁華에 대한 꿈을 마음껏 전개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군림했고 사대부층이 사회를 주도했던 宋·明代보다 도교·불교가 흥성하고 화려한 귀족문화가 꽃피었던 唐代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더 적합했을 것이다. 그리고 형산이나 회남 같은 형초지역이 지닌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는 <구운몽>의 몽환적이고 낭만적인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배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에 비해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모두 명대 嘉靖년간을 시

17) <구운몽>에서 唐代를 시간적 배경으로 취한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줄고, 「구운몽의 상상적 형식과 욕망에 대한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9, 111~5면)에서 짧게 논한바 있다. 형초지역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권순궁,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가정제는 즉위 후 親父 흥원왕을 皇考로 추존하는 大禮議 논쟁을 일으키고 엄승 같은 권신을 중용하여 술한 정치적 파란을 초래한 昏君이었다. 그런데 가부장적 가족-국가질서에 내재된 모순을 탐구하고 이상적인 부부·부모·군신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바로 이 가정제의 통치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 중국사에 대한 사대부 작가들의 해박한 지식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 선택을 단순히 우연 혹은 무작위의 결과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지하듯이 <사씨남정기>는 요철에 미혹된 家長과 절의를 지키는 怨妻, 간신에 미혹된 君主와 忠諫하는 放臣 간의 갈등을 중층적으로 결합시켜 가부장적 가족-국가질서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어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지닌 군주/가부장의 자기 克己(修己)과 신하/아내의 충성스런 견제(忠諫)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가정년간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당대 조선의 정치현실에도 절실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가부장적 가족-국가질서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한 모순에서 발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교적 정치시스템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서사화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필화를 피하고자 한 <사씨남정기>의 작가가 선택한 시대적 배경이 바로 명대 가정년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점은 <창선감의록>의 배경 설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주15)에서 <창선감의록>이 매우 정교한 연대기적 시간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지적한바 있는데, 이처럼 명대의 역사에 정통했던 작가가 굳이 가정년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진경환은 가정제 초기의 대례의 논쟁이 17세기 조선에서의 예송과 매

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주목하면서, <창선감의록>의 작가가 이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西人の 당파적 입장을 정당화하고 예송을 풍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한바 있다.¹⁸⁾ 그런데 <창선감의록>의 문면만 보면 예송과 관련되거나 그것을 연상케 하는 사건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일면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군주권의 강화를 위해 붕당 간의 알력을 이용하고 엄승과 같은 권신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가정제의 통치술은 군주권 강화를 위해 당파 간의 갈등을 이용했던 숙종의 통치술을 연상케 하는 면이 많다. 그런 점에서,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창선감의록>에서 명대 가정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황제의 비호를 받아 전횡을 부렸던 엄승을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시킨 데에는 나름의 정치적 우의성 혹은 목적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해석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비해 <소현성록>은 북송의 태종~인종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취하고 있다. <소현성록>은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에 비해 가문 내적 갈등에 서사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작품으로서, 시대적 배경 자체에 그리 특별한 정치적 목적성을 두고 있지 않은 작품으로 평가받아왔다.¹⁹⁾ 하지만 중국사에서 북송의 태종~인종대는 사대부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문치주의가 확립되어가면서 붕당정치가 처음 태동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인종대에 벌어진 광후 폐위 사건이나 범엄증·여이간 세력 간의 [이른바 慶曆黨議라고 불리는] 당쟁 등은 조선에서 사대부 남성들뿐 아니라 규방 여성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곧잘

18)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98~102면.

19) 박영희는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이 宋史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작품에서 이들이 매우 미미한 역할만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실존 인물들의 등장은 소씨가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배려 이상의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해석한바 있다.(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133면.)

회자되던 중국사의 주요 장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므로 <소현성록>의 작가가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굳이 이 시기를 배경으로 선택한 데는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되었을] 규방 여성들의 이 시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일반화된 지식이 우선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북송대의 이 시기가 사대부들 간의 붕당정치가 처음 출현하고 성리학적 가족-국가질서가 비로소 구축되어 가던, 즉 사대부 정치문화와 종법적 가족/가문의식이 처음 그 형태를 드러낸 시원적 형성기였다는 점 또한 배경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소현성록>의 주된 서사적 관심 또한 사대부 가문들 간의 연대와 이를 통한 종법적 가족질서의 구축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17세기 후반 창작된 장편소설을 사례로 삼아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 작용한 공통적·개별적 요인들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요컨대 조선 후기 장편소설이 중국을 배경으로 취하는 데에는 나름의 내재적 요인과 창작적 고려가 있었다는 것이니, 이를 단지 창작관습의 도식적 반복이나 사대주의적 종속성의 산물로만 설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절의 결론이 되겠다. 그런데 덧붙여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조선 후기의 장편소설 향유층에게 중국사는 異國·異民族의 역사라기보다 유교적 정치체제 하에서 어디에서나 반복될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보편사)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리라는 점이다. 이 점은 一民族·一國史를 근간으로 삼는 근대주의적 독법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조선의 사대부 남성이나 여성들은 역사서나 장편소설들을 통해 중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데, 지배층의 필수 교양으로 자리잡았던 중국사는 이들에게 이국·이민족의 역사라기보다 역사와 세계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틀을 제공하는 보편적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독자들은 중국의 역대 왕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조선의 당대사를, 혹

은 자신의 개인사나 가족사를 환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 19세기 장편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화’ 인식의 동요

앞서 3절에서는 17~8세기의 장편소설에서 중국 배경이 일반화되는 양상과 그 요인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19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에 이르면 이와 같은 양상이 한편으로 여전히 지속되거나 때로 더욱 심화되는 면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요와 변화의 국면을 맞기도 한다. 19세기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지속·심화·동요·변동의 국면은 소설 향유층의 중국 인식, 나아가 세계 인식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 절에서는 19세기 장편소설 속 중국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동시대 장편소설 향유층의 중국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중화와 이적으로 대별되던 세계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간략히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17~8세기의 장편소설과 비교해볼 때 19세기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특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그 중 하나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특히 신라) 혹은 해외의 변방을 배경으로 삼는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한습유>, <육미당기>, <태원지> 같은 작품들이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중화문명을 상징하는 明朝를 배경으로 삼아 위기에 빠진 명의 수호를 강조하는, 이른바 ‘대명의식’을 고조하는 작품이 창작되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옥루몽>을 비롯하여 <유충렬전>과 같은 영웅소설을 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절에서 필자는 일견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러한 두 국면이 사실은 심층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려 한다. 즉 19세기 들어 더욱 심화된 화이론적 세계질서의 동요와 균열, 이에 따른 장편소설 향유층

의 불안과 위기의식, 이와 함께 더욱 고조되었던 조선중화주의 등이 이러한 두 국면 속에 공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국면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7~8세기 장편소설은 일반적으로 [종족적·지리적·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중화’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왕조로 인식되는] 宋이나 明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주인공을 중국의 명문거족의 일원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송·명대에 형성·발전된 사대부 중심의 정치문화와 종법적 가족/가문주의를 받아들여 자기화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장편소설 향유층의 세계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장편소설 가운데 일부 작품들은 신라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 인물이 신라를 넘어 중국이나 천상계로까지 나아가 활약하게 하거나 혹은 漢族인 주인공이 夷狄이 통치하는 중원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도록 하는 등 이전 시기의 장편소설의 인물·배경 설정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이 이와 같은 배경을 취하게 된 요인의 하나로는 작품의 창작 동기나 소재적 원천을 들 수 있다. 특히 <육미당기>는 작가 서유영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라사에 대한 관심과 단종·익종에 대한 특별한 追念이 창작 동기로 거론된바 있으며²⁰⁾, <삼한습유>는 18세기 초 경북 선산에서 일어난 실제의 사건과 이를 소재로 한 여러 선행 작품들에 그 창작의 원천을 두고 있다.²¹⁾ 그러므로 <육미당기>나 <삼한습유> 같은 작품의 경우 애초

20) 서유영은 신라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육미당기>에서도 주인공을 신라 소성왕의 아들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신라사에서 소성왕의 아들(청명태자)은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숙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 애장왕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반전시켜 허구의 낙관적인 역사로 재창조하고 있는데, <육미당기>에서 주인공 김소선은 병이 든 부친 소성왕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입신양명을 이루고 두 공주를 비롯하여 여섯 부인들을 얻은 후 신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다. 장효현은 작가 서유영이 지니고 있었던 신라사에 대한 관심과, 사릉 참봉을 지내면서 갖게 된 단종의 비사에 대한 깊은 회오, 夭死로 인해 뜻을 펼치지 못한 익종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이 작품의 창작 동인으로 추정한다.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238~46면.)

작품의 소재적 원천 자체가 토착적인 것이기에 중국이 아닌 신라를 작품의 배경으로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편소설 독자층의 분화 및 소설관의 변화 또한 이러한 배경 설정의 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7~8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들은 [비록 남성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을지라도] 규방의 여성들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세기에 창작된 장편소설, 특히 한문으로 창작된 장편소설들은 사대부 남성 지식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²²⁾ 또한 19세기에 이르면 역사 서술 양식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했던 기존의 관념 대신, 역사 담론과 소설 담론의 차이를 인식하고 소설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관념이 경화사족들을 중심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²³⁾ 이처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창작된 19세기 장편소설은 17~8세기의 국문장편소설에서 발전된, 역사 서술 양식을 모방하면서 중국사 연표를 참조하고 중국의 역대왕조를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취하는 창작관습에 그리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 요인이 어떠한 배경 설정에서의 ‘탈중국화’는 조선 후기 장편소설사에서 19세기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아니라 신라 같은 자민족의 고대국가를 배경

-
- 21) <삼한습유>의 소재적 원천과 변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집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저만을 참조로 든다.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조혜란, 『삼한습유-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소명출판, 2011.
- 22) 물론 19세기에도 여성 독자층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였고 그들을 향한 장편소설의 창작 또한 활발하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19세기에 창작된 한문장편소설의 경우, 표기문자나 서발문 등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애초 남성 지식인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겨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 23) 조선 후기 소설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장효현, 「조선 후기의 소설론」, 『어문논집』 23, 안암어문학회, 1982; 박일용, 「조선 후기 소설론의 전개」, 『국어국문학』 94, 1985;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으로 취한 작품들이 출현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장편소설의 세계 인식에 어떤 변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중국 인식 혹은 세계 인식에 있어서 [중원을 떠나 새로운 문명국을 건설하는 줄거리를 지닌] <태원지> 같은 작품과 이러한 작품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은 없는 것일까.

우선 이러한 배경 설정에서의 ‘탈중국화’가 19세기 소설 향유층의 중국 인식 혹은 세계 인식의 변동과 일정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들 작품에서는 중화문명의 중심이자 발신자는 중국이고 신라/조선은 그 변방이자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컨대 <육미당기>에서 중국은 주인공 김소선이 지닌 탁월한 자질을 펼치기 위한 무대로서 기능하는데, 여기에서 신라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어떤 장어나 콤플렉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삼한습유>에서 신라인 향량은 열녀의 재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우주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로, 그녀를 통해 유교문명의 낡은 도덕률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문명적 기준이 제시된다. <태원지>에서도 조선은 “산수명녀고 인물이 변화하며 네악법도 삼황오제리·리 본바드니 의관문물이 사니고·니 성대명왕을 법밧고 능히 부자·자·효와 군의신통과 부부유별과 당자·유유경당을 삼가니·니 고로 텃보동방네의지국”²⁴⁾으로 소개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작품에서 신라/조선이나 태원²⁵⁾은 중화문명을 대등하게 공유·계승해가거나 새롭게 꽃 피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배경 설정에는 중화라는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던 중심-주변·華-夷의 위계성을 부정하고 이를 균질화

24) 『영이록·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73, 1권 22면.

25) 태원은 중원에서 원 통치에 저항하여 일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임성 일행이 조선으로 가려하다가 표류하여 닿은 낯선 이방이다. 이적이 지배하는 중원을 거부한 임성 일행이 처음 선택한 곳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이었고 이 조선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태원이니, 태원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중원을 대체하여 중화문명을 꽃 피울 適地라고 할 수 있다.

하거나 전도하는 측면이 있다.²⁶⁾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배경 설정에서의 탈중국화를 ‘반중화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중국이 아니라 신라/조선 혹은 태원이 중화문명의 대등한 공유자이며 나아가 새로운 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명청교체 이후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속으로는 청을 부정하고 조선을 중화문명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상상했던 이른바 ‘조선중화주의’와 유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조선중화주의²⁷⁾는 명청교체 이후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구축된 17세기 중반부터 그것이 해체된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하지만 그 내부에 많은 모순과 균열을 내포하고 있기도 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지배 담론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여전히 세계를 중

26) <태원지>의 경우 이적의 중원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천명론과 화이론 사이의 균열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사실 조선 후기 사대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善惡·華夷와 상관없이 천하를 통일하면 곧 정통이라고 보는 소동파의 天命論과 현실의 승패와 상관없이 선악·화이를 바탕으로 정통을 찾는 구양수의 정통론 사이에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김창흡을 비롯한 낙론계 일부를 제외하고 조선 후기 사대부들 다수는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다.(조선 후기 정통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허태용, 「조선후기 중화계승의식의 전개와 북방고대사인식의 강화」,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6, 100~5면 참조.) <태원지>의 경우 원 지배 또한 천명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전자의 관점을 취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적의 중원 지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화이론적 정통론을 따르고 있는 듯도 보인다. 이 때문에 논자에 따라 <태원지>는 청 지배를 비판하고 화이질서를 부정하는 작품으로도 해석되고(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화이론에 입각한 조선중화주의의 산물로도 해석된다.(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태원지〉-」,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27)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배층은 명 중심의 화이론적 국제질서의 회복을 꿈꾸며 북벌을 추진한바 있다. 하지만 청의 중국 지배가 안정되자 중화문명의 유일한 보존자는 조선뿐이라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관념으로 퇴행하는데, 여기서 ‘조선중화주의’란 이처럼 중화를 회복하자는 주장에서 중화를 계승한다는 관념까지를 포괄하는 조선 후기의 문화자존주의 전반을 지칭한다.

화와 이적으로 대별하는 화이론적 문명의식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화이론의 핵심에 내장되어 있던 종족적·지리적 중심성을 거부하고 해체하기도 하였으니, <육미당기>나 <삼한습유>, <태원지> 같은 작품들이 보여주는 세계 인식은 이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그런데 19세기 장편소설 가운데는 이와는 매우 다른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그것은 중화문명의 상징이랄 수 있는 명이 이적들에 의해 침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영웅적 역량을 가진 인물이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대표적으로 <옥루몽>이나 <유충렬전> 같은 작품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 명은 중화문명의 상징으로서 내부의 반란과 외적의 침입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이 17~8세기 장편소설에서도 명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빈번히 채택된바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명은 조선 사회와 동질성을 지닌 사회로서, 조선 후기 사회가 해결해야 했던 정치사회적 문제나 지향했던 종법적 가족/가문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작품의 배경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옥루몽>이나 <유충렬전>에 묘사된 명은 안으로는 간신의 발호와 당쟁의 폐해 때문에 균열되어 있고 밖으로는 이적의 침입 때문에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국가이다.

이러한 배경 설정의 한 요인은 이 작품들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통속소설 유형인 영웅소설의 장르문법에 상당히 충실한 것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의 위기야말로 영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이 작품들에서 국가의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하는 것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영웅소설적 창작관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옥루몽>이나 <유충렬전>에서 ‘대명

의식'의 강조는 유별난바 있다. 중화문명의 정통적 계승자이자 보루로서 명의 위상을 인정하고 화이론에 입각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명의식은 이 작품들의 주인공 양창곡이나 유충렬에 의해 거듭 표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명의 회복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굳어진 19세기에 이처럼 대명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청 중심의 국제질서를 부정하고 명의 회복을 바랐던 독자 대중들의 통속적 원망을 상상어나마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마도 이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중화주의는 조선 후기의 지배 담론으로서, 지배층으로부터 일반 민중에게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통속화되었다. 그리고 영웅소설은 이러한 독자들의 통속적 원망에 충실하게 반응한 대중적인 소설 유형이었다.²⁸⁾

하지만 19세기 장편소설에서 이처럼 갑자기 대명의식이 강조되는 양상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의 명을 조선으로 치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작품들에서 묘사된 명을 사라진 과거의 명 왕조가 아니라 내외우환의 위기에 처한 현실의 조선으로 해독할 때 이 작품들이 갖는 절실한 역사성이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속의 명이 文華를 뽐내다가 文弱에 빠져 멸망했다면, 중화문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조선 또한 내외우환의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문약한 국가였다. 예컨대 <옥루몽>이 창작된 19세기 전반의 조선은 한편으로 세도정권의 국정 농단, 허약해진 국가재정과 민에 대한 과도한 수탈, 이에 따른 민심의 이반 등으로 內憂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양선의 잦은 출몰이나 천주교의 전파 등으로 外患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와 같

28) 특히 <유충렬전>을 포함하여 전주·태인 지역에서 간행된 완판본에서는 대명의리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해 업태웅은 이 지역 출판업자들이 독자들의 보수적인 역사인식에 영합한 결과라고 해석한바 있다.(업태웅, 「<소대성전>·<용문전>의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양상」,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은 맥락에서 보면 <옥루몽>에서 당쟁과 이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명나라는 내외우환에 시달리는 19세기 조선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서세동점의 위기에 처한 중화문명세계 전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터이다.

이상 살펴본 19세기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방향의 변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충되어 보인다. 하나가 낙관적이고 발산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해체하고 중화문명의 확산을 도모한다면, 후자는 중화문명의 중심으로서 명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상 양자는 심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양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의 하나는 조선이 중화문명의 적통을 이어받아 보전하고 있다는 조선중화주의이다. 자민족의 역사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대명의식의 새삼스런 강조도 모두 조선중화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자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연결 고리는 19세기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양문명의 위협적 출몰과 이로 인해 고조된 문명사적 위기의식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 반까지 끊임없이 조선의 해안선을 따라 출몰하였던 이양선은 조선 정부와 지배층에게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천주교의 맹렬한 교세 확장과 순교는 중화문명의 적통을 자처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중화문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촉발했다. 물론 서양문명과 접촉이 반드시 방어적 태도만을 낳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을 동요시키고 중화 개념의 탈중심적 재해석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미 18세기 말 홍대용의 사유가 보여주듯이 서양문명과 접촉을 통한 세계 인식(서학)의 확대는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 혹은 전통적인 중화 개념을 탈중심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요컨대 19세기 장편소설의 배경 설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방향의 변화는

19세기 들어 심화된 문명사적 위기의식과 이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강화된 조선중화주의의 상호 모순적이고도 길항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다. 즉 한편으로 그것은 중화 개념을 탈중심화하면서 조선중화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밖으로 발산하고자 하는 낙관적인 문명의식을 낳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문명의 세계 안으로 물러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폐쇄적인 문명의식을 낳기도 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매우 소략하게나마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중국 배경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검토해보았다. 특히 한국 고전소설의 다수는 복고적이고 사대주의적이라는 해묵은 부정적 통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전소설 속에서 중국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 조건과 맥락에 주목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근대 시기 양국은 일반적으로 책봉-조공체제라는 한편으로 불평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혜적인 雙務的 관계를 맺어왔지만, 그 관계가 항상 안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했는가 하면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제한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였다.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은 이러한 한중 관계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 양국의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당-신라기에 창작된 <최치원>에서부터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 중화문명의 계승을 지향하던 19세기에 창작된 <삼한습유>나 <옥루몽>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전소설에서 중국은 세계를 인식하는 틀로서 기능해왔다.

이 글은 한국 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을 통해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했지만, 시론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에만 그쳤을 뿐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보충해나갈 것을 다짐할 뿐이다.

KCS I

❖ 참고문헌

- 『영이록·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73, 1권 22면.
- 강상순, 「구운몽의 상상적 형식과 욕망에 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9, 111~5면.
- 권순궁,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지역」,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계승범, 「16~7세기 명-조선 관계의 성격과 조선의 역할」, 『정치와 평론』 10, 한국정치평론학회, 2010.
-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0면.
-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133면.
-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서신혜, 『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 , 「주생전의 창작 배경」,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 ,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 엄태웅, 「〈소대성전〉·〈용문전〉의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의 변모양상」,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 이광수, 『신생활론』, 박문서관, 1926.
- , 「조선문학의 개념」, 『신생』 2권 1호, 1929.1.
- 이우성, 「남북국시대와 최치원」,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 임치균,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장서각』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238~46면.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86면.
- 정출현,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지평과 나말여초 서사문학」, 『새민족문학사강좌』 1, 창

- 비, 2009.
- 정환국, 「16~7세기 동아시아 전란과 애정전기」,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학회, 1999.
- 조상우, 「최고운전에 표출된 ‘대중화 의식’의 형성 배경과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 조혜란, 『삼한습유-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소명출판, 2011.
-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98~102면.
-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 46, 한국한문학회, 2010.
- 차용주, 「쌍녀분설화와 유선굴과의 비교연구」, 『어문논집』 23, 민족어문학회, 1982.
- 한영환, 「최치원과 유선굴」, 『충격과 조화』, 국학자료원, 1992.
- 허순우, 「중화주의 균열이 초래한 주체의식의 혼란과 극복의 서사-〈태원지〉-」,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 허태용, 「조선 후기 중화계승의식의 전개와 북방고대사인식의 강화」,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6, 100~5면.

논문투고일: 2013.9.30 심사완료일: 2013.10.26 게재확정일: 2013.10.30

❖ Abstract

China Background and Perception of China in Korean Classical Novel

Kang, Sang-Soon*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eason which China background was appeared and the process which perception of China was changed in Korean classical novel.

China background was appeared discontinuous in Korean classical novel from period of the Silla-Koryŏ transition to 17's century. Then It was generalized in Late Chosun period, because Korean long classical novel written in Korean was going to imitate historiography and satisfy readers' desire.

When it reached the 19th century, perception of China was changed ambivalently and sinocentrism was disturbed in Korean classical novels written in Chinese.

Key word: China Background, Perception of China, Sinocentrism, Universal World History, Quasi-History, Narrative Fantasy

* HK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